전공의 폭행·접대 강요 잘못된 관행 '수술' 시급

의료계 비인격적 주종관계 이젠 사라져야

전남대병원 전공의들의 교수 성접대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내에서의 교수와 전공의간, 전공의 선후배간 주종관계(?)에 따른 그릇된 관행을 이제는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인권이 향상되고 대다수 직장의 근무 환경도 민주화됐지만 유독 병원 내 의사 교육과정의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행태는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의료계는 물론 관련 업계의 지적이다.

최근 수년 사이 의료계에서도 이 같은 관행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일어 상당 부분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의사들의 노력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의사들에 따르면 병원 내에서 교수들의 전공의에 대한 폭행과 선배 전공의의 후배에 대한 폭행, 인격적인 모욕 등 폭력적인 교육방식은 아직도 잔존하고 있다. 극히 일부지만 전공의들이 해당 교수에게 술접대를 하기도 하며, 그 이상의 향응 제공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년 전에는 이 같은 관행이 심각한 진료과의 경우, 전공의 5년 동안 최소 1억원이 든다는 말이 통용되기도 했다. 전공의 생활에 시달리지 않기 위해 교수와 선배에게 수시로 술접대, 선물 공세를 펴야 하기 때문이다.

전남대병원은 지난 해에도 교수 A씨가 전공의 뺨을 때려 고막이 파열되는 바람에 전공의 12명이 업무를 일시 중단하는 사태를 빚기도 했다.

또한 올초 모 종합병원에서는 선배 전공의에게 폭행을 당한 전공의가 연락이 두절돼 휴대전화가 끊긴 무등산 일대에서 경찰이 수색작업을 벌이는 일도 있었다.

또 다른 병원에서는 한 교수가 전공의 과정을 밟고 있는 아들이 의대 교수의 시달림을 당하자 이를 문제삼아 소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전공의는 "아침부터 새벽까지 진료와 응급실 당직, 잡무, 논문정리 등에 치여 눈도 제대로 붙이지 못하는 날이 비일비재하다"면서 "생명을 다루는 의사로서의 기강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폭력을 동원하고 접대까지 강요하는 교육환경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한 원로의사는 "전공의들은 의대생들과 달리 현장에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만큼 가혹하게 트레이닝을 시키는 것이 관행이다"면서 "교육은 엄격해야 하지만 예전 같은 폭력이나 잘못된 접대 등의 관행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자전거 무료로 빌려 드립니다" 1일 광주시청을 찾은 시민들이 청사 앞에 비치된 자전거를 타고 있다. 광주시는 이날부터 시청과 각 구청, 지하철 역사에 자전거 900대를 비치해 시민들에게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성매매 접대 의혹' 교수 축출

전남대병원, 전공의 수련 등 직무 박탈

해당 교수 사직서 제출 … 경찰 조사 착수

전공의에게 성매매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남대병원 교수가 진료와 전공의 수련 등 병원 직무를 박탈당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대병원은 1일 특별인사위원회를 열어 최근 물의를 일으킨 교수에 대해 병원 겸직을 해제해달라고 전남대 총장에게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전남대병원 관계자는 "해당 교수가 일부 부적절한 행동을 했을 개연성이 있어 겸직 해제를 요청하기로 했다"며 "겸직발령이 해제되면 교수는 진료와 전공의 수련 등 대학병원 내 활동을 중단하고 전남대 의과대 교수직만 갖게 된다"고 말했다.

해당 교수도 "언론 보도 등으로 말썽이 빚어진 데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이날 사직서를 냈다. 이 교수는 "언론 보도가 부풀려진 부분도 있지만 모두 부인하지는 않는다"며 "회식 때 유흥주점을 갔지만, 성매매를 하고 그 비용을 전공의들에 부담하게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빠른 시일 내에 광주지검에 낼 예정이어서 파장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와 관련 언론에 보도된 의혹제기 내용 등을 토대로 기초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해당 교수와 전공의 등을 불러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전남대병원 한 전공의 가족은 "교수가 수년째 일주일에 수차례 전공의들과 회식을 하고, 유흥주점에 간 뒤 성매매를 했으며 이 비용을 전공의에게 부담하게 했다"고 주장했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불법 단속 해경 폭행 치사

中 선장 징역 7년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일 목포해양경찰서 박경조 경위를 숨지게 하고 해경 6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로 기소된 중국어선 선장 허신취안(37)씨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중국어선 항해사 시우리청(35)씨를 비롯한 선원 10명에 대해서도 각각 2년6개월~6년의 징역형과 벌금 25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전자발찌' 효과

광주·전남 1년 새 46명

성범죄자 재범률 '제로'

성폭력 범죄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전자발찌' 제도가 도입된 이후 광주·전남지역의 재범률이 '제로(0)'를 기록하는 등 시행 1년 만에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법'이 시행된 이후 1년간 모두 472명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1명 만이 성범죄를 다시 저질렀다.

특히 광주·전남은 지난 1년간 46명이 '전자발찌'를 부착했으며, 이들 가운데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지난달 말 현재 광주·전남의 '전자발찌' 부착자는 18명이다. 전국은 '전자발찌' 부착자가 198명에 이른다.

'전자발찌법'은 재범 우려가 큰 성폭력 범죄자에게 최장 1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9월 1일 시행됐다. 법무부는 살인·강도·방화 등 강력범에 대해서도 발찌를 부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경호기자 choice@

심사위원 명단 사전 유출 … 성접대·뇌물 수수

구례군 공무원·교수 등 6명 입건

구례군이 발주한 관급공사 추진 과정에서 특정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입찰정보 등을 제공한 공무원들과 심사과정에서 특혜를 준 교수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일 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 수주를 돕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장모(54·5급)씨 등 구례군 공무원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입찰 참여 업체로부터 로비를 받고 심사 과정에서 특혜를 준 대학교수 이모(64)씨 등 심사위원 4명과 왕모(56)씨 등 업체 대표 2명을 함께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지난해 10월 29일 "구례군의 야간경관 조명공사를 수주하게 해달라"는 왕씨의 청탁을 받고 심사위원 7명의 명단을 알려준 뒤 성 접대 등 26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 등 서울지역 대학교수 3명과 구례 문화계 인사 등 심사위원 4명은 평가 당일 왕씨 업체에 만점을 줘 이 업체가 공사를 수주하도록 돕고 이 대가로 17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공사의 총사업비가 3억2천만원에 달하는 점으로 미뤄 이들 사이에 금품이 더 오갔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

신종플루 확산…휴업 학교 6곳으로 늘어

흑산 홍어축제 취소

목포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 7명이 신종플루 확진 환자로 판명돼 휴업에 들어갔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1일 목포 모 중학교는 그동안 3명이었던 환자가 이날 10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오는 8일까지 휴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남지역 휴업 학교는 3곳, 개학 연기 학교는 3곳으로 각각 늘어났다. 광주의 경우 3개교가 휴업중이다.

또 신안군은 오는 12~13일동안 흑산도에서 열기로 했던 '제 3회 흑산홍어축제'를 취소했다.

한편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환절기를 맞아 신증플루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광주의 아침 최저기온은 18도, 낮 최고기온은 29.2도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졌다. 순천(17.2도, 29.6도) 등 전남 지역도 일교차가 10도 이상 차이가 났다. 기상청은 이 같이 일교차가 큰 날씨가 적어도 오는 8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법원 "남성 성관계 정년은 69세"

쌍나팔

○…남성이 성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나이를 69세까지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눈길.

○…서울고법 민사1부(정현수 부장판사)는 1일 교통사고로 발기부전 장애가 생긴 윤모(47)씨가 가해 차량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 손해액 4천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재판부는 병원에 윤씨에 대한 신체감정을 의뢰해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성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나이를 69세까지로 판단, 60세까지는 주 2회, 69세까지는 주 1회의 성관계를 갖는 것으로 가정해 성관계 시 보형물 삽입과 비아그라(발기부전 치료제) 복용 등 발기부전 치료비를 계산했다고 설명. /연합뉴스